

제 5 차 전 국 어 머 니 대 회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개 회 사 와 강 령 적 인 연 설 《가 정 과 사 회 앞 에 지 닌 어 머 니 의 본 분 에 대 하 여 》 를 하 시 였 다

제 5 차 전 국 어 머 니 대 회 가 12 월 3 일 수 도 평 양 에 서 성 대 히 개 막 되 었 다.

대 회 에 는 자 녀 들 을 나 라 의 역 군 으 로 훈 령 히 키 워 국 력 강 화 와 사 회 주 의 대 가 정 의 부 흥 발 전 에 공 헌 한 어 머 니 들 과 모 성 영 용 들, 부 모 없 는 아이 들 을 데 려 다 친 자 식 처 럼 돌 바 준 어 머 니 들, 중 앙 과 지 방 의 녀 맹 일 군 들 이 참 가 하 였 다.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장 이 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주 석 단 에 나 오 시 었 다.

순 간 전 체 참 가 자 들 은 어 머 니 들 의 소 박 하 고 평 범 한 삶 을 공 산 주 의 어 머 니 라는 가 장 신 성 하 고 고 귀 한 부 림 으 로 빛 내 어 주 시 며 존 엄 높 은 강 국 시 대 를 떠 땀 이 나 가 는 참 다 운 주 인 공 들 로, 조 선 로 동 당 과 국 가 의 자 랑 으 로 내 세 워 주 시 는 위 대 한 어 버 이 를 격 정 의 눈 물 속 에 우 리 르 며 최 대 의 경 모 심 을 담 아 오 래 도 록 폭 풍 같 은 《만 세!》 의 환 호 성 을 터 처 울 리 었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는 행 복 한 나 날 에 나 시 런 의 나 날 에 나 가 정 과 조 국 의 운 명 을 하 나 로 잇 고 후 대 들 을 위 한 천 만 고 생 을 락 으 로 달 게 여 기 며 끝 없 는 사 랑 과 정 으 로 우 리 혁 명 에 거 대 한 힘 과 무窮 한 활 력 을 더 해 주 는 온 나 라 어 머 니 들 에 게 뜨 거운 경 의 를 표 하 시 었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개 회 사 를 하 시 었 다.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는 어 머 니 들 이

애 국 의 마 음 으 로 소 중 히 가 꾸 어 준 가 정 의 작 은 울 리 띠 들 이 그 대 로 주 추 들 이 되 어 나 라 를 억 세 게 떠 반 들 고 있 기 에 사 회 주 의 대 가 정 이 굳 건 한 것 이 고 우 리 조 국 이 계 속 강 해 지 고 있 는 것 이 며 바 로 이 것 이 조 선 의 어 머 니 들 이 당 과 혁 명, 조 국 앞 에 이 룩 한 불 멸 의 공 적 이 라 고 높 이 평 가 하 시 면 서 대 회 참 가 자 들 과 온 나 라 의 모 든 어 머 니 들 에 게 당 중 앙 위 원 회 와 공 화 국 정 부 의 이 름 으 로

축 원 의 인 사 를 보 내 시 었 다.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는 제 5 차 전 국 어 머 니 대 회 를 대 단 히 중 시 하 는 당 중 앙 의 의 도 를 밝 히 시 고 이 번 대 회 가 모 든 어 머 니 들 이 시 대 적 사 명 과 자 기 의 본 분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우 리 식 사 회 주 의 의 승 리 를 위 한 애 국 위 업 에 지 혜 와 힘 과 열 정 을 다 바 쳐 나 가 게 하 는 획 기 적 인 계 기 가 되 리 라 는 확 신 을 표 명 하 시 면 서 개 회 를 선 언 하 시 었 다.

조 국 의 강 성 을 위 한 려 정 에 몰 어 온 녀 성 들 의 순 결 한 량 심 과 사 심 없 는 노 령 을 진 주 보 석 처 럼 귀 중 히 여 기 시 며 최 상 의 영 광 과 영 예 로 빛 내 어 주 시 는 자 예 로 온 어 버 이 의 정 과 믿 음 이 뜨 겁 게 울 리 녀 띠 치 는 말 씀 을 감 격 의 눈 물 속 에 접 하 면 서 전 체 참 가 자 들 은 위 대 한 당 중 앙 의 승 고 한 뜻 을 높 이 받 들 어 후 대 들 의 훈 령 한 성 장 과 조 국 의 밝 은 전 도 를 위 해 끝 없 이 헌 신 해 갈 열 의 에 넘 쳐

에 하나 같이 간 직 된 것 은 일 신 의 편 안 보 다 당 과 국 가 의 고 민 과 격 정 을 먼 저 생 각 하 는 깨 끗 한 량 심 이 고 혁 명 의 미 래 를 떠 메 고 나 갈 새 세 대 들 의 대 오 를 튼 튼 히 꾸 리 는 데 이 바 지 려 는 승 고 한 공 민 적 자 각 이 라 고 하 면 서 보 고 자 는 이 령 듯 고 결 한 인 생 관 을 지 닌 녀 성 들 의 대 오 가 나 날 이 들 어 나 고 있 는 데 대 하 여 긍 지 높 이 언 급 하 였 다. (2 면 으 로 계 속)



제 5 차 전 국 어 머 니 대 회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개 회 사 와 강 령 적 인 연 설 《가 정 과 사 회 앞 에 지 닌 어 머 니 의 본 분 에 대 하 여》 를 하 시 였 다



(1면에서 계속)

우리 어머니들은 혁명가의 첫걸음도 어머니의 첫숨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자녀들의 가슴속에 백옥같은 충성심을 새겨주어 주체혁명의 제일전통을 꿋꿋이 이어놓은 것이야말로 어머니들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자녀들을 국가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요소들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뒀듯이 내세우고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을 가꾸어가는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헌생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이후 우리 녀성들속에서 11명의 공화국영웅과 50여명의 로력영웅, 3,500여명의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배출된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보고자는 지금 사회적으로 세세대들속에서 비사회주의적인 부정적요소들이 일부 발로되고있는것은 가정교양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육체적성장뿐 아니라 정신적성장을 책임진 첫째가는 교양자답게 자녀교양에 더 많은 품을 들여 혁명적인 가정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영원한 화목과 번영, 대대손손 부강할 조국의

래일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시대와 혁명이 안겨준 값높은 영예와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은혜로운 태양의 축복속에 존엄과 영광의 절정에서 어머니의 행복을 꽃피워가는 조선녀성들의 무한한 자긍심과 애국열의를 북돋아주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12월 4일에 계속되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열렬한 총의심과 비상한 애국의지로 받들며 가정과 나라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참가자들의 강렬한 지향이 넘쳐흐르는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여 축하시 《위대한 어머니께 영광드려요》를 낭송하였다.

조국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국위의 밑바탕에 진하게 고여진 이 나라 어머니들의 지극한 성심과 헌신의 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한 축하시는 대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토론들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공감과 박수갈채속에 계속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녀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가 곡산군 덕중농장 농장원 리화숙, 보산제철소 보수직장 노동자 리향숙, 성간군염소목장 노동자 김영옥, 재령군 금산로동자구 부양 김영화, 안변군 신화고급중학교 교원 권금복, 덕성군 장흥리 부양 조금섬,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화포농장 농장원 리연희, 갑산군 신정리 부양 조선애, 어랑군 봉강리 부양 복혜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노동자 한금숙,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 부양 한명희, 조선인민군 제479군부대 군인가족 안명실, 대성구역 룡룡1동 부양 남길현, 조선인민군 제582군부대 종업원가족 리연희, 청진시 수남구역 어항동 사무장 신옥희, 정평군 독산리 부양 고련순, 은정구역 광명동 부양 김희숙, 사리원육아원 노동자 리화숙, 연안군 흥립고급중학교 교원 남화옥, 라진구역 라시동 부양 량정희녀성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 상장과 선물증서, 금반지를 수여하였다.

대회장은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해가는 녀성들의 평범한 삶을 숭고한 모성애의 정화로 값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격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에서 모진 고난속에서 승리를 창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영광의 력사속에 참된 애국의 본보기, 수많은 영웅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뿌리가 되어준 제일 정의롭고 감격찬 우리 어머니들의 불멸의 공적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대회참가자들과 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은 어머니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사회의 주력으로 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떠받들어야 할 세세대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은 제1차적인 혁명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전도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변화된 리사사회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

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들을 상세히 언급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아름다운 터전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꿈과 녀념을 최선을 다하여 실현하는것을 영예로운 임무로 삼고 더 힘차게 투쟁해나갈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어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축원하시면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일구월심 충성으로 받들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 길에서 하나하나의 성물이 되고 주춧돌이 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열화의 환호성과 충성의 구호를 힘있게 터쳐올리었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키우고 혁명적인 가정의 대, 존엄은 강국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나갈 조선녀성들의 철석의 의지를 백배해준 긍지높은 대회합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가 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전당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투쟁열의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당 및

국가정책목표달성에서 훌륭하고 고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의정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2023년을 성과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가 있었다.



이고 지속적인 장성추이가 뚜렷해지고 농업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으며 특히 국방위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변혁들이 일어난것을 비롯하여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며 그를 기반으로 하여 새년도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를 언급하시이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앙양된 전진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뜻깊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 모임 진행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제일 강하고 굳센 우리 어머니들의 고결한 인성관과 아름다운 삶을 가장 값높이 빛내어주며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고있는 위대한 당중앙은 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뜻깊은 선물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선물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과 존경의 제일단상에 높이 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이 한가정의 며느리, 안해이며 어머니들이라는것을 헤아리시어 선물의 품종과 가지수를 기호에 맞게 선정하도록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 준비를 당중앙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중시하고 추진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가정과 나라의 미덕과 미풍을 꽃피우며 우리 사회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지극하고 고마운 어머니들을 남편과 자식들앞에, 이웃들과 집안앞에 부러움도록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육친의 정이 선물마다에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말하였다. 가정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열듯이 공산주의에로 가는 대령도도 앞장서서 여는 마음가짐으로 온 나라의 화목과 행복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모시고있는것은 천만아들딸들의 더없는 긍지이며 커다란 힘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들이 앞으로도 혁명의 대, 존엄높은 강국의 바탕이 굳건히 이어지게 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 연설자는 모두가 건강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를 빛내이는 충성과 애국의 한길에서 어머니의 영예롭고 숭고한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선물명세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격정과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어머니로서 응당한 본분을 한것밖에 없는 평범한 여성들을 당과 국가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온갖 사랑과 배려를 거둬 안겨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들이 터치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장내를 격동시켰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일련단심 높이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 부강조국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어머니, 공산주의어머니라는 고귀한 부름을 영원히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조선의 어머니들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의 줄기찬 계승속에서 밝게 빛나는 강국의 미래, 우리 위업의 창창한 전도를 과시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축복을 받아안은 어머니들을 축하하는 공연이 6일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에는 우리 조국이 새시대의 진군길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의 월계관을 어머니들에게 다 안겨준데 이어 뜻깊은 축하공연 무대까지 펼쳐준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뜨겁게

차남치고있었다.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과 조선의 어머니들을 레찬한 명곡들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이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위대한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의 운명도 미래도 있고 값 높은 존엄과 영예도 있음을 감명 깊게 구가하였다.

본사기자



참다운 인간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사람들 누구나 달력의 마지막장과 함께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본다.

그러면 너무도 극명한 명암속에 대조를 이루며 안겨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덕과 정이 풍기

처럼 흐르는 인간사랑의 화원과 패륜과 악덕이 란무하는 어둠과 차거운 동태의 모습이다.

그 아기의 이름은 전산정,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531번째 세상둥이의 막내였다.

지난해 11월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산정의 상태는 복잡심장기형에 좌측폐가 검사상에서 보이지 않는 최종중환자였다. 심장이 기형적으로 너무 크다니니 폐를 심히 압박하고 있다고 검사상에서도 왼쪽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쁜숨을 토했고 있었다. 이렇게 꺼져간 어린 생명이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의 극진한 정성과 뜨거운 사랑속에 복잡한 심장수술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면 지난 7월에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구자초등학교와 덕천시 승리산초등학교의 녀교원들이 다리가 불편하여 잘 걸지 못하는 학생들을 매일과 같이 업고다니며 공부도 배우주고

치로도 해준 소행이 전해졌고 지난 9월에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청력장애로 10여년세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한 학생에게 뜨거운 지성을 바친 평양시 모란봉구역 진흥초급중학교 녀교원의 이야기가

전해져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온 나라에 세차게 타넘지는 정성운동의 불길속에 황해북도종합병원의 의료일꾼들이 110여일간의 치료끝에 완치실명당하였던 한 조선인민군 병사에게 광명을 되찾

사랑의 화원에 핀 아름다운 꽃송이들

공화국은 덕과 정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화원이다. 올해에도 이 사랑의 대화원에서는 맑고맑은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활짝 피어나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지난 1월말 옥류아동병원에서는 한 소년과 의사와 간호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퇴원하였다.

그의 이름은 김정철,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에서 배움의 첫걸음을 뗀 7살짜리 꽃망울같은 소년이다.

지난해 11월 정철이가 뜻밖에 심한 부상을 입고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사경에 처한 그의 모습 앞에서 의료일꾼들 누구나 연습하는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정철이는 원무를 우에서부터 발목까지의 살이 근육과 뼈가 들어

패륜패덕이 란무하는 썩고 병든 암흑사회

덕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과는 달리 괴뢰지역은 악이 판을 치는 사람 못살 세상이다.

올해 괴뢰지역에서 발생한 《그림자아가사건》이 그것 잘 말해준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위생실에 들어가는 60대녀성을 따라가 폭행하여 갈비뼈와 코뼈를 꺾어놓았는가 하면 6월말에는 TV를 보다가 살인총동을 느낀 20대녀성이 알지도 못하는 같은도래녀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시체를 드렁크에 넣어 내다버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경기도에서 한 괴뢰인 20대녀성을 아파트승강기에서 다짜고짜 폭행하고 강간하려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

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이 아름다운 미덕과 미풍들은 공화국이야말로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랑의 대화원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자 있었고 염증과 고열에 시달리는데다가 많은 피를 흘려 의식마저 없었다. 심하게 오열된 다리의 상처를 통해 폐혈증이 뒤따르게 되면 생명까지 잃을수 있었다.

환자를 살리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일꾼들은 자기의 팔다리를 떼어내더라도 정철이에게 이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치료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진행된 수술만 해도 8차례, 수술후에도 의사와 간호원들은 소년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바치었다.

정철이가 살고있는 구역의 일꾼들은 또 그들대로 병원에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료해하고 많은 량의 귀한 약재를 보내주었으며 정철이가 공부하고있는 장경소학교에서도 소년의 소생을 위해 온갖 지성을 기울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괴뢰당국이 조사를 벌인데 의하면 현재 수사중인 아실총사건이 867건이나 되고 1000여명의 아이들이 행방이 명확치 않다고 한다.

괴뢰지역에서는 인턴네트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출구에서 칼부림한다.》, 《서울 강남역리근 초등학교에서 8~13살 처녀애를 성폭행하겠다.》, 《오늘 7시에 재송역주변에서 사람들 다 죽일겁니다. 경찰도 그냥 죽일겁니다. 저를 막을수 없을겁니다.》와 같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 사회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이런 뜨거운 정이 그대로 보약이 되고 피가 되어 마침내 정철이는 다시금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덕과 정이 차넘치고 온 나라 인민 모두가 친형제로 행복한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다.

올해 이 땅에 꽃피는 덕과 정이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2월 옥류아동병원에서는 한 어머니가 생사기로

괴뢰지역에서는 교정의 룰리도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학생이 교원의 머리칼을 잡고 넘어뜨린 사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건, 부산의 한 초등학교학생이 교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행위를 저지른 사건 등 올해에 만도 괴뢰지역에서는 교정의 룰리를 짓밟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났다.

이 모든것은 괴뢰지역이야말로 패륜과 악덕이 란무하는 범죄사회, 덕과 정이 불모지라는것을 더욱 여실히 실증해준다.

본사기자 전명진

본사기자 전명진

본사기자 전명진



로동자들을 행복의 꽃방석에 앉혀주는 나라

공화국에는 《나의 로동자의 아들이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다. 누구나 즐겨 읊는 그 시에는 승용차도 왕복로 로동자 다음에 있다는 구절이 있다.

오직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된 공화국에서만 이런 볼거리는 로로가 울려나올수 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들이 《말하는 기계》, 돈의 노예가 되어 짓밟히고 천대받으며 생의 막바지에서

해매이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로동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어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에 가보아도, 사회주의변화기인 승화거리와 화성거리에 가보아도 그 주인들은 일터마다에서 혁신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고있는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최근에 원수님께서 뜻깊은 선거날에 이곳을 찾았으며 통성의 로동자들과 함께 선거에 참가하신것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당과 조국을 혁명적대고조로 억척같이 받아들여온 통성의 근로자들이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선도해나가는 핵심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표시이다.

나라마다 각종 선거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있지만 주권기관의 일꾼으로 선출되고 평도자와 함께 선거에 참가하며 평도자의 찬성투표를 받는 존엄높은 로동계급은 오직 이 땅에서만 볼수 있다.

하기에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뜻깊은 2023년의 12월에도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고

능란한 기악연주수씨, 풍부한 성량과 고운 목소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동작, 잘 짜인 안상법...

어느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장면이 아니다. 행복에 넘친 이

류다른 공연무대의 주인공들

파연 누가 이들을 장애자라고 믿겠는가.

만일 다른 사람의 부족을 받으며 무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도교원의 지휘에 맞춰 춤을 추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을 장애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악과 노래 《우리의 국기》로 막을 올린 이들의 공연은 시작부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관중들의 절찬을 받은 많은 작품들가운데서도 랑홍색 공화국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무대를 누비며 화려한 춤동작을 펼쳐보인 무용 《장애를 딛고》가 그러했다. 장애를 딛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려는 장애자체육인들의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작품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무엇을 해도 능란하게 가야금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 주구라 없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국외에 널리 알려진 공훈 예술가 김명숙선생의 가야금 독주 《오직 한 마음》도 감동을 자아냈다.

한점의 빛도 불수 없는 그

그 품 떠나 못살아

에서 울려나오는 격정의 토로를 그대로 담고있었기 때문이다.

무릇 장애자라고 하면 장애인류사과 더불어 불행의



대결광들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파기행위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의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 놀음이 공화국이 합의서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고 《상시적위협》을 거듭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야말로 북남군사분야합의서파기의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비렬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적패당이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고의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기해온 죄행은 감출 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전부터 북남군사분야합의서(《안보포기각서》, 《정치연극》)로 매도하며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당은 공화국을 《명백한 주적》으로 선포하고 군사적대결

을 《국책》으로 정하는 등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리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전장과 총들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을 그칠새없이 벌였다. 《울지 프리덤 힐드》합동군사연습, 《비질런트 스톰》연합공중훈련, 《쌍룡》연합상륙훈련, 대륙수전 부대작전훈련을 비롯하여 공개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만 하여도 무려 80차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군사연습들이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공격 방식을 숙달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역적패당은 올해 4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공격을 노린 미국산전과와 지난해 10월 동부전선의 조선인민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10여시간에 걸치는 포사격도발과 올해 3월 서부전선전방 경계로 파주시 진동면 조리사격장에서의 포사격행위들은 피뢰군사장패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중지할데 대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대표적도발 사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시적으로 위반해온 주범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피뢰지역의 각계층이 윤석열역과

피뢰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도발행위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피뢰군부호두머리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면서 《국가, 강력히, 끝까지》의 원칙에서 《응징》하라고 고야맨데 이어 《린합군사령부》에 찾아가 미국피뢰《동맹》의 압도적능력으로 공화국을 《응징》하겠다고 떠들어대었다.

그런가 하면 미행동력함 공모합《칼빈슨》호타격집단과 일본해상《자위대》구속합을 끌어들이며 제주도주변해상에서 미일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공화국의 만리를 굽어보는 밝은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앞에서 어떤 참변을 당하게 될지 가늠 못하는 어리석은자들의

하루 칼야치의 《응징》 단행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끝장내자!》,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난 2일 서울에서 윤석열역도 퇴진을 요구하는 제67차 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로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종교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탄핵하고 총선하자!》, 《탄핵이 평화다》, 《국민의 명령 윤석열탄핵》,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 끝장내자》 등의 대형포스터와 선전물들을 들고 윤석열의 전쟁도발책동이 도를 넘어섰고, 미국이 시도 때도 없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훈련에 윤석열이 앞장서 날뛰고 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언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전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윤석열의 책동을 초불의 힘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국민사기행각, 윤석열(정권) 응징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가조작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부패비리 범피집단, 정치검찰 박살내자!》, 《어른공작 언론쿠데타 윤석열을 탄핵하라!》,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행진을 지켜본 각계층 군중은 《대중적인 초불항쟁에 직면한 윤석열과 그 일당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총선전에 탄핵하라! 지금 당장 탄핵하라!》, 《추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날이 추울수록 초불의 뜨거운 힘으로 질척하자!》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주권민대》, 《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과 항의문발표, 기

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윤석열역도퇴진투쟁을 끝까지 벌릴 것을 선언하였다.

《주권민대》는 《진 민족 총단결로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책동을 저지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될 것이며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 엄중성을 폭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에 다량의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하고 류레없는 최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맹종하는 윤석열이 이 땅을 핵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핵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당장 멈춰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진보연합》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윤석열이 사실상 이를 파기한 것은 전쟁도발을 꾀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다른 아닌 미국이다.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윤석열을 전쟁도발격대로 앞세워 합동군사연습정례화와 3각전쟁동맹을 성사시켰다.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에 맞서 전쟁을 막아내야 한다.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야 한다. 윤석열탄핵이 평화이고 탄핵이 생존이라는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본사기자 박철남



만 필 과대망상증에 걸린 《룡산괴물》

《우리는 결코 공산전체주의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 한쪽으로 탄 가리마, 우동통하고 노기등등한 도끼눈에 앙다문 입술, 축 처진 볼따귀, 역스러운 상통의 주인공인 윤석열역

의 망발이다. 자기를 모르고 민심을 모르며 세상리치를 모르면서도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오만하고 망당을 부리는 역도이기에 세계적인 핵강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하겠다고 미친 짓거리도 거리낌없이 일삼고 있다. 그야말로 과대망상증이다.

이런 정신병자가 최근에는 공화국의 합법적인 주권행사인 정찰위성발사를 결코 북남군사분야합의서까지 파기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전쟁결소등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아무리 화약내에 머리가 들었고 해도 어떻게 제논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평화의 안전권》을 스스로 뽑는 어찌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한 합의서내용을 보면 우주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북의 정찰위성발사를 결코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건드린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식한 윤석열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지 못하면 전쟁의 참상이 울수 있다. 군사분야합의서를 선제적으로 파기한 것은 군사분계선지역을 《무통제대》로 만들어 군사적충돌을 불러오는 무모한 행위이다. 힘으로 북을 누를 수 있다는 착

각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비난하는 피뢰지역 전문가들과 민심의 목소리는 그대로 맨머리로 청바위를 들이박으려는 최대의 미련둥이에 대한 직선적인 평이다.

원체 주술에 빠진 너네행의 《조연》이나 북철의 빠따처럼 녹아흐르는 《명칭이》들의 아찔에만 습관된 역도인이라 사람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의 안전권》, 《최후의 보루》,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도 없었고 들었고 해도 심각한 단계에 이른 과대망상증은 《무조건 파기》라는 광대를 저지르는 데로 나가게 하였다.

총건이긴 하지만 이런 천치바보인자를 믿고 반공화국전쟁대결에 내몰고 있는 미국의 신세도 참 가련하다.

주위분별도 없이 제멋대로 놀아내는 정신병자, 세상의 변천과 지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대망상으로 오만에 사로잡힌 인간추물이 절대적행위를 지닌 초강국을 어찌 보았다고 날뛰고 있느냐 정말 살다살다 별말 다 보았다.

김혜성

리들은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질에만 미쳐돌아가고 있다. 며칠전에 있는 래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내 처리 둘러싸고 여야가 벌인 싸움만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2명의 경사를 언론장악과 부정부패혐의에 걸려 《국회》의 교체를 주장하며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대법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피뢰인론들은 《여야 사이의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래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져 왔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네랏공방만 벌리고 있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여야대치정도는 오히려 더 세졌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안협상 역시 진척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평하였다.

여야간의 싸움으로 주요법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하였으며 그로 하여 수백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계류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각계층속에서 《보복이 판을 치는 동물국회》, 《사라사들에게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 힘》 것들은 본회의를 개최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야당을 공격해나섰다.》

그러자 야당은 여당소속인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본사기자 주광일

만 화 자 멸 적 망 동



